

물가3%대 진입 기대감에 찬물?...원유 감소·공공요금 억제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둔화 점화
OPEC+ 감소→에너지가격 ↑·금리인상 압박
한전·가스공사 적자까지...요금 인상 압력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2% 올라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로 서서히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가 최근 원유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물가가 또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는 데다, 공기기업들은 이미 적자와 미수금이 심각해 연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상승폭은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둔화하다 지난달 1년 만에 최저치인 4.2%를 기록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은 14.2% 내려갔다. 이는 2020년 11월(-14.9%)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휘발유 -17.5%, 경유 -15.0%,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LPG) -8.8% 등으로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0.76%포인트(p) 끌어내렸다.

다만 전기로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28.4% 오르며 전월(28.4%)에 이어 202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을 제외한 지수인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지난 1월(6.0%)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건 2021년 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과 3월 소비자물가는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져 석유류 때문에 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PEC+에서 원유를 감산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순차적으로 국내 물가에 반영돼 향후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OPEC+가 감산을 예고한 지난 3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6.27% 상승한 84.77 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1일(7.12%)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OPEC+의 갑작스러운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OPEC+는 이날만 116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하는 등 115만 배럴을, 아랍에미리트(UAE)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4만4000 배럴을 감산한다.

이번 결정은 국내 물가와 경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요인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달 2분기(4-6월) 인상이 유력했던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잠정 보류됐지만,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에너지가격 상승을 또 미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누적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회수율은 70%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은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금 인상되지 않으면 원로비 미수금은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원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최근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국제에너지 가격 연동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이 3%대까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규직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우리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얼마나 올라갈지가 문제다. 지금은 80달러 중반쯤으로, 지난해 연평균 90달러 정도보다는 낮다. 이 영향이 없었다면 물가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속도가 좀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전기 생산 단가를 올리고, 그게 전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기업의 적자 요인이 있어 인상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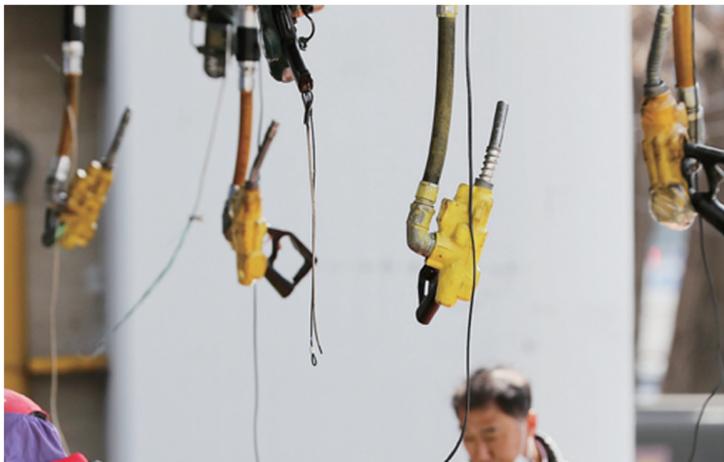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OPEC+의 감산 결정은 우리 물가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경기 자체에 대한 영향과 금리 인상 요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물가는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경기 부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 가격을 반영하면 물가 압력이 생겨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요구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반영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산 결정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리 정책에 상당한 유익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3월 물가가 4%가 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4.8%로 안정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유가 급등에...원유 ETF '웃고' 천연가스 ETN '울고'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수익률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을 추종하는 'KODEXWTI원유선물(H) ETF'는 지난 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5.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TIGER원유선물Enhanced(H) ETF와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 ETF 수익률은 각각 15.89%, 12.24%를 기록했다. 2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인 'QV 블룸버그 2X WTI원유선물 ETN'는 같은 기간 35.05%나 급등했다.

반면 천연가스 ETN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B'는 이 기간 12.73%나 급락했다. 올 들어 82.36%나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 'TRUE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H)'과 '미래에셋 천연가스

선물 ETN(H)'도 각각 13.58%, 6.48% 떨어졌다. 연초 이후로는 82.95%, 54.52%나 폭락했다.

이는 최근 국제 원유값과 천연가스 가격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는 지난 2일 원유 생산량을 일일 160만 배럴 감산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장중 8%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자국산 원유생산량을 일일 50만 배럴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알제리 역시 자체 원유생산 축소 계획을 차례로 내놓았다.

반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던 천연가스는 이상기온 여파로 급락했다. 올 1분기 기록적으로 따뜻한 겨울날씨와 서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가 맞물려 내림세를 보였다.

"원유 ETF 톨오버 효과 유의해야"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유럽의 에너지 절약과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저장고의 건강한 상황이 가격 하락의 주요인"이라며 "천연가스는 에너지원 중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진 에너지원이다.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큰 만큼 현재의 천연가스 가격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유 ETF는 '톨오버 효과'로 원유 현물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투자보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톨오버 효과란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함에 따라 차월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수익을 말한다.

박 ETF상품전략팀장은 "원유관련 ETF는 선물 투자가 주이며 선물의 월물 교체에 따른 영향(현재는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높은 컨탱고 상황으로 향후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격 연동되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며 "최근 에너지 기업들과 유가와 상관도가 높아져있는 만큼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에너지 기업 ETF·ETN 투자 방법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WTI ETF 등은 원유선물에 주로 투자함에 따라 선물의 근원물과 원월물의 가격차이에 따른 톨오버효과로 원유 현물가격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또 원유의 원월물은 원유의 스톡 현물가격과 가격 움직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TF가 원유선물 및월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선물 리밸런싱이 언제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LG 올레드 에보, 해외서 역대 최고 찬사

LG전자 2023년형 TV 'LG 올레드 에보'가 글로벌 시장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미국 매체 슬래시기어가 전세계 주요 12개 TV 브랜드 평가 결과 LG전자를 1위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슬래시기어는 "최고의 T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LG전자 제품보다 좋은 것은 없다"며 "2013년 올레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해 전세계 올레드 TV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평가 결과에서 삼성전자는 2위를 차지했으며 소니와 TCL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 매체 테크레이더는 LG 올레드 에보에 대해 "지금까지의 모든 하이엔드 TV를 압도한다"고 극찬했다.

특히 "우수한 휘도와 완벽에 가까운 HDR 성능을 갖추었다"면서 "부자연스럽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표현력도 더욱 정교해졌다"고 평가했다.

오유나기자

독일 매체 컴퓨터빌드는 TV 성능 평가 점수 가운데 역대 최고점을 부여했다. 컴퓨터빌드는 "TV의 새 기준이 될 만큼 우수한 화질을 갖추고 있으며, 현 시점 이보다 더 나은 TV가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년형 LG 올레드 에보는 LG전자의 OLED TV 10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완성한 '밝기 향상 기술'을 적용했다.

일반 올레드 TV 대비 최대 70% 가량 밝고, 기존 동급 제품 대비 빛 반사와 화면 비침 현상을 줄였다.

다이나믹 톤 맵핑 프로 기술로 각 장면을 세분화해 HDR 효과와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한다.

LG전자 HE연구소장 정재철 전무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올레드 TV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세상을 없던 고객 경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2월 주택거래, 아파트 비중 82.5% '역대 최고 기록'

빌라는 9.1% 역대 최저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빌라 거래 비중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리뷰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82.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다.

주택 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세종의 주택 거래 779건 중 아파트 거래는 763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97.9%로 집계됐다.

이어 대전이 92.6%의 높은 비중을 보였고, 울산 90.1%, 대구 89.4%, 경남 89.2%, 광주 88.8%, 경기 84.2%, 서울 82.5%, 충남 82.4%, 부산 81.8%, 인천 78.9%, 충북 77.1%, 강원 76.3%, 전북 74.1%, 전남 72.8%, 경북 70.7%, 제주 3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전국 빌라 거래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것이다.

황한솔 경제리뷰 리서치연구원장은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크린랩, '봄맞이' 기획전...32개 주방용품 할인

생활용품 기업 크린랩이 자사 공식 온라인몰 '크린랩몰'에서 대표 주방용품 32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는 '봄맞이 기획전'을 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5일 크린랩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밀폐력과 신장도를 강화한 이중 지퍼백과 무독성 제조공법으로 제작한 크린랩, 한 장씩 뽑아 쓰는 크린백 등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 ▲크린롤백 ▲크린장갑 ▲분리수거 크린백 ▲고무장갑 레이스 코랄 ▲고무장갑 레이스 바이올렛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을 만나 볼 수 있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김치세 작가와 협업한 김참새 마스크(10매)를 받는다. 크린랩은 페이코 앱을 통해 20% 할인 쿠폰



도 제공한다. 크린랩몰에서 페이코 결제 시 다운로드 받은 할인 쿠폰을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뉴스스